

# 함흥 할마리와 냉면



남 승균  
대전사무소장

짐 정리를 하다가 예전 사진첩을 발견했다. 두툼한 인화지의 새삼스런 감촉에 정리를 잠시 미루었다. 사진들을 넘기다보니 몇 해 전 할머니와 찍은 사진이 있었다. 냉면을 좋아하시던 할머니와 함께 오장동 함흥냉면집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함흥이 고향이었던 할머니는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흥남철수작전 때 영하 40도의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서 미 군선 메리디스 호를 타고 고향을 떠나오셨다. 당시 수송된 민간인들은 거제도로 보내졌는데, 할머니는 통일이 되면 다시 함흥으로 돌아가실 생각으로 휴전 후 춘천에 새 터전을 마련하셨다.

원래 이남에서 함흥냉면의 원조는 속초라고 한다. 이북 사람들이 함흥에서 가까운 속초에 자리 잡으면서 냉면집들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면을 먹으러 가기에 춘천에서 속초는 너무 멀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냉면이 생각나면 서울 오장동을 찾으시곤 했다.

오장동에는 지금도 흥남집, 오장동 함흥냉면, 신창면옥 세 업소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할머니는 함흥 탈출의 동지이신 ‘형님’ 할머니와 종종 냉면 나들이를 다니셨다. 그런데 두 분은 서울까지 기껏 함께 오시고도 냉면은 따로 드셨다. 형님 할머니의 단골집은 흥남집이었지만 할머니는 오장동 함흥냉면집만 가셨다. 냉면집 주인 할머니와 거제도에서부터 친분이 있으셨던 모양이었다.

“형님 우이 그 집만 가시오?” “흥남집 상기 아이 가오?” 맛에 대한 견해 차이로 늘 티격태격 하셨지만, 그래도 그건 즐거운 추억이셨으리라.

30년 전 내가 처음 맛보았던 냉면은 지금과 달리 엄청나게 매웠다. 면은 또 얼마나 역세었는지, 아랫입술을 도마삼아 꿇고 또 꿇어 내야 했다. 하지만 함흥냉면의 박력 넘치던 그 맛은, 포성 가득한 흑한의 바다와 그보다 더 거친 인생의 바다를 넘어야했을 사람들에게 삶과 공명하는 위로였을 것이다.

한갑이 넘어서도 한겨울 대청봉을 오르시던 할머니는 허리 수술을 잘못 받으시고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거동이 어려워지셨다. 다행히 몇 년 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실 수는 있었지만, 냉면을 드시러 오시지 못했다. 가끔 면만 따로 사다드리기도 했지만, 집에서는 가자미식해나 육수를 만들기 어려웠다. 특히 육수가 문제였다. 함흥냉면도 원래는 육수를 넣어 먹기 때문에 육수의 맛이 중요하다. 하지만 오장동 함흥냉면집의 육수는 반출이 되지 않는다.

함흥 아미의 역세었던 뼈마디도 시간의 무게에 점점 휘어지고 있었다. 그 날, 무리인 줄 알면서도 할머니에게 냉면을 드시러 가자고 했다. 손자 힘들까봐 안 간다고 하시다가 재차 권하니 느린 걸음을 재촉하며 지팡이를 짚고 나서신다.

점심시간이 지났건만, 줄을 서서 기다렸다. 할머니의 거칠고 두툼한 손을 닮았던 함흥냉면은 슈트를 차려입은 도시 젊은이의 허리춤처럼 매끈하고 날렵해졌다. 문득 30년 전 아홉 살 어린 형가 감당해내기 어려웠던 그 티프함이 그리워졌다. 하지만 냉면이 나오자 할머니의 입가엔 웃음이 가득하다. 달라진 맛이려면, 맛있게 드신다.

춘천에 가져가실 면을 따로 주문하면서, 육수를 줄 수 있는지 넌지시 물어보았다. 냉면 면발처럼 머리가 희끗해지기 시작한 주인 할머니의 머느리는 무언가 짐작했던지, 아무 말 없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맣소, 잘 계시오.” 할머니는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시고 냉면집을 나셨다. 햇살이 오후로 누엿 스며들기 시작하던 어느 가을의 아무렇지 않은 오후였다. 그 모습이 사진 속에 어제인 듯 남아있다.

